

어느 별 맑은 밤, 아기 별 하나가 동강으로 떨어 집니다. 아기 별이 동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 을 빼고 구경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만 것입니 다. 동강에 온 아기 별은 아기 수달을 만나 금세 친구 가 됩니다. 둘은 동강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풍선껌을 줌게 되고, 그 풍 선껌을 붙여 동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황조롱이를 만나 풍선껌이 터지는 바람에 둘은 동 강 속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미유기를 만나 간신히 살아나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까치 할아 버지의 사연도 알게 됩니다.

아기 수달과 아기 별이 풍선껌을 붙여 동강 여행 을 떠나는 얘기. 동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수 달의 모습을 통해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함을 알 게 해준다.

또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오랫동안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데 보탬을 준다.

<풍선껌 타고 동강을 동동동>에서는 사람과 동 물, 식물이 다르지 않다. 사람과 다른 생명체들은 모두 동강에 기대고 사는 똑같은 생명체일 뿐이다. 저자인 동화작가 윤재희씨의 이런 생각은 동강 을 사람들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하는 우리의 태 도를 은연중에 꼬집는다. 개밭이나 보존이니 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를 일깨워 준다.

저자는 말한다. 동강이 아름다운 건 경관을 간직 해서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기 때 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동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경치 때문만이 아니다. 그곳에 기대고 사는 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쉽지만 유 려한 문체로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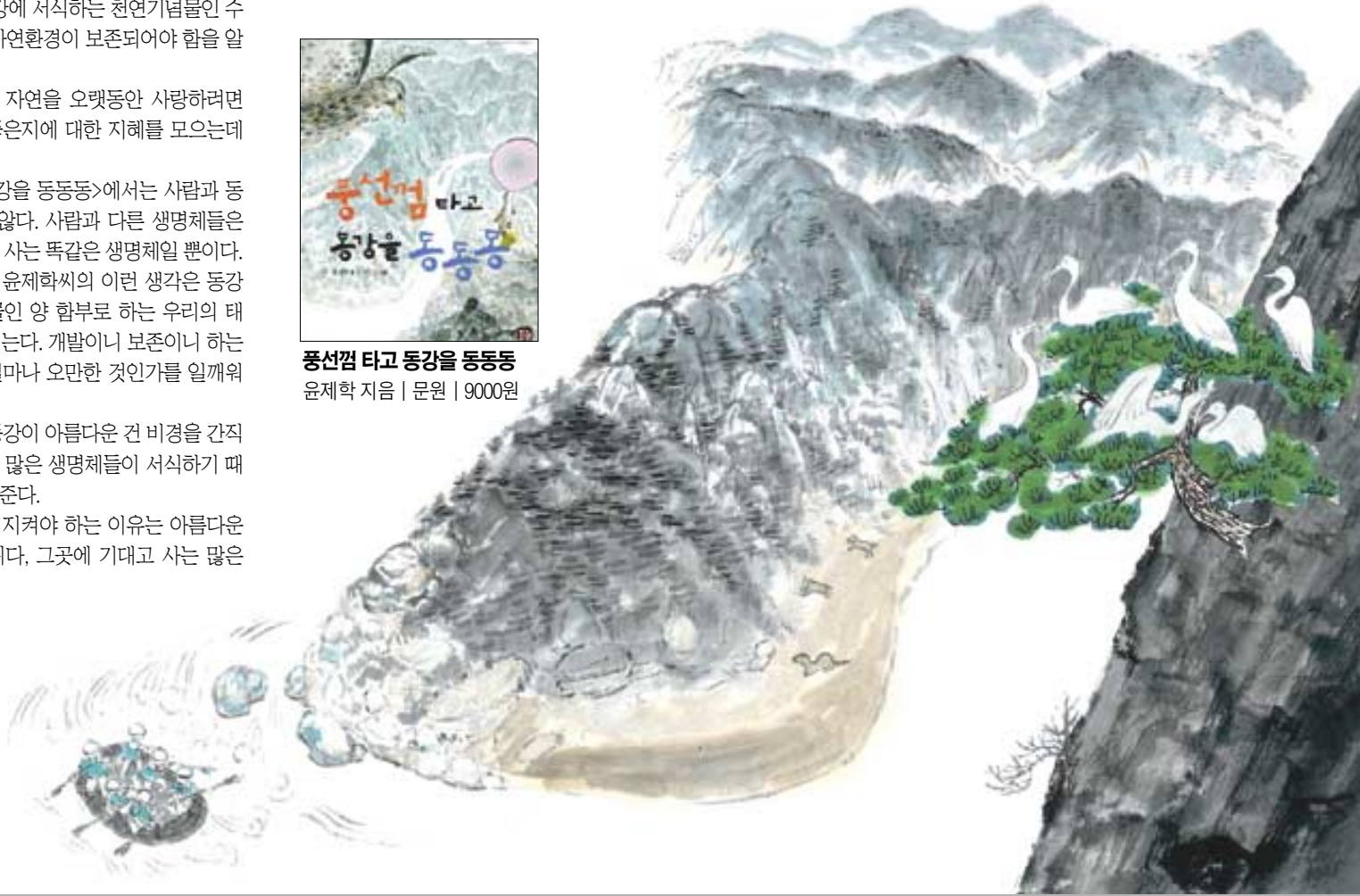
동화 말미에 아기수달은 어느새 어른이 되고 아 기별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동강에서 태어난 아기 비오리들은 동강이 안전하지 않다는 엄마의 충고를 듣고 떠날 채비를 한다. 과연 이들은 떠날 수 있을까...

이 동화는 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체들의 삶 을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말로 그 립을 그리듯 묘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풍선껌 타고 동강을 동동동
윤재희 지음 | 문원 | 9000원



동강이 아름다운 건 만 생명 품고 있기 때문이지

네티즌강추

세계를 울린 피아니스트 이수미의 희망찾기

피아노로 세상을 울려라 고영숙 지음, 현문미디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미 양이 정상에 오르니까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수미는 13세의 나이로 머나먼 미국 땅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수미의 부모는 사업에 실패해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에 살면서도 노점상과 파출부 일, 식당 배달일을 전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독일에서 실력을 쌓던 수미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일연방청소년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피아노 부문 1등상을 수상한다.'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어. 무엇보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기뻐어 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이수미 양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꿈은 버리지 않는 한 이루어지나 봅니다. 고난도 우의이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지요. 부모님이나 수미씨에게 박수를...

(싸이키, kyobobook.co.kr)

화내지 않는 선생님, 소리지르지 않는 엄마

미안, 내가 천사인 줄 몰랐어 최은숙 지음, 산티
중학교에 근무중인 최은숙 선생님의 보석같은 글이다. 정말 좋은 선생이고픈 그녀가 조곤조곤 써내려간 교단 일기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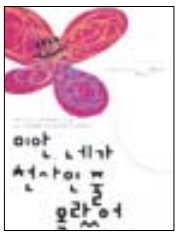
그녀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중학생 아들을 둔 나에게 우리아들이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게 하는...

좋은 엄마이자 좋은 선생님인 그녀의 글을 읽어 가면서 참 따뜻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절대로 소리지르거나 화내지 않기를 꼭 지키고 있 다는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엄마인지를 다시 한번 생 각하게 하는 책.

그래서 꼭 다짐했는데... 나도 서두르라고 소리지르고 채근하지 않기로... 하지만... 하지만... 난 그게 쉽지 않네.

(bonita, lifelog.blog.naver.com/ibonita/01_ibonita_2)



책속의 밑줄긋기

○...이제 아버지는 전정가위를 내게 물려주고 빈손만 남 았다. 가위를 잡았던 손의 손금은 다 닳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다.

얼마 전 읍사무소에서 지장을 찍는데 지문이 안 나와서 몇 번을 다시 찍어 직원들에게 민망했다고 아버지는 수줍 게 말씀하셨다.

지문은 중개였어도 이제는 포도향이 짙게 배어 있을 아 버지의 손.

나는 잠든 아버지에게 다가가 가만히 당신의 손을 쓸어본다. '자기가 힘들게 짝 튀우고 키운 일을 가늘이 되어 땅에 내어줄 때 나무는 가장 행복한다.'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에게 새 전정가위를 하나 사드려야겠다. 새 가위를 들고 아버지가 31년간 사랑을 키운 포도나무가 열매맺기를 그만 둘때까지 가지치기를 하도록...

-<포도밭 편지> 40쪽에서, 류기봉 지음, 예담출판사



소 찾은 아이
이상희 지음 | 사계절 | 9800원

잃어버린 '소' 찾아 떠난 소년

소의 눈을 닮은 소년이 있습니다. 둘은 얼마나 닮았는지 소년의 이름 도, 소의 이름도 심우입니다. 심우는 소를 낫가 소나무에 매어놓고 아이 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흰뱀! 한 마리. 흰뱀!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심우는 물고기를 세다 말고 문득 소나무 쪽을 바라봅니다. "우리 소!" 가슴이 찢어 내려앉습니다. 소를 묶어 뒀던 소나무 밑자리가 웅얼합니다. 심우 마음도 웅얼하 빈 듯 합니다.

마음을 뒤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목동인 소를 찾는 과정에 빚되어 보여주는 그림 '심우도'. 육심 때문에 잃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아 깨달 음을 얻고, 그런 뒤에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

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준다.

이 그림책 <소를 찾은 아이>는 그림 '심우도'에서 소재를 빌려온 것 이다.

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속의 소를 떠올리게 한 다. 소중한 것을 잃고 애달파 하다가, 그것을 찾는 뒤에는 곧 잃어버리 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보게 한다.

아이들의 그림동화이자 어른들이 읽어보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 다. 김중민씨가 아크릴 판을 칠필로 굵어 판화로 찍어낸, 가는 선이 모 인 그림은 책의 내용만큼이나 담백하다.

저자인 이상희씨는 1960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7년 '중앙일보' 신춘 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현재 시인, 그림책 글 작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원도 원주에서 그림책 전문 어린이 도서관 '패랭이 꽃 그림책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슬레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쟁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남매공방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진동 비음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채 조청**

- ◆ 산채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채 조청은 산채 조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채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오르지않은 **산채 참죽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척척의 해소, 신경조율, 항염,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채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은간장을 새하얀색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채 조청 웰빙 자연당

-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빈천 만드실 때
-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당,
이제는 몇몇 대신 산채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채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문재현 선사님 열전 / 스승의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융합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으로부터 비롯하여 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우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계자인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봉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작하신 전문에 담긴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신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우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